

Morning Meeting Brief

글로벌 전략

매주 금요일 만나는 다음주 전략: 화제의 전환 2가지(미국에서 중국, 경제지표에서 실적으로)

- 증시의 바로미터가 바뀌는 시점. 미국증시, 경제지표 확인이라는 익숙함에서 중국증시, 실적시즌 돌입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증시 흐름 좌우
- 미국 관심 소외 속, 중국(증시 급등, 수출/2Q GDP 개선) 투자심리 훼손 방어. 미국 2/4분기 실적 시즌 돌입, 실적 부진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불가피
- 모멘텀(정책, 지표, 실적) 잦아 부재로 증시의 방향성이 모호해질 수 있는 만큼, 지수보다는 언택트와 코로나19 치료제 수혜가 지속될 수 있는 섹터(IT, 헬스케어)대응이 유리

문남중, namjoong.moon@daishin.com

산업 및 종목 분석

[Issue Comment]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기대감 확대

- 한화솔루션, OCI, 현대에너지솔루션 등 국내 태양광 관련주 주가 강세 시현
- 금주 폴리실리콘 가격 전주 대비 3.4% 상승하며 2주 연속 상승(2W +7.4%). 6월 들어 하락세 진정 이후 반등 시현. 가격이 과도하게 하락하며 지속되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하반기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되며 가격 상승
- 코로나19에 따른 단기 수요 위축에도 견조할 연간 태양광 수요: 2020년 글로벌 태양광 수요 118GW(-0.8% YoY) 전망. 코로나19로 하반기 수요 집중 현상 기대

한상원, sangwon.har@daishin.com

화제의 전환 2가지

(미국에서 중국, 경제지표에서 실적으로)

- 증시의 바로미터가 바뀌는 시점이다. 미국증시, 경제지표 확인이라는 익숙함에서 중국증시, 실적시즌 돌입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증시의 흐름을 좌우할 것이다.
- 미국은 정책 모멘텀 부재 속, 16일 발표되는 소매판매 개선 폭 축소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환기 그로 인한 경제지표 개선의 연속성에 의구심을 높일 수 있다. 증시에 부정적 변수로 바뀌는 대신, 7월 들어 급등하고 있는 중국증시가 미국증시 대신 자리를 꿰차면서 14일, 16일 발표되는 수출, 2/4분기 GDP 개선과 맞물리며 투자심리 훼손을 방어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 또 다른 화제 전환은 2/4분기 실적시즌 돌입이다. 美 S&P500 기업의 2/4분기 순이익 증가율(-43.9% YoY)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여,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지만 실적 부진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에 영향은 불가피하다. 다만, 2/4분기를 저점으로 하반기 개선(3/4분기 -24.7% YoY, 4/4분기 -13.2% YoY)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실적이 향후 증시 상승에 짐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 정책, 지표, 실적이라는 모멘텀 잦대 부재로 증시의 방향성이 모호해질 수 있는 만큼, 지수보다는 언택트와 코로나19 치료제 수혜가 지속될 수 있는 섹터(IT, 헬스케어)대응이 유리한 시점이다. [S&P500 주간 밴드: 3,000~3,250]
- **[BOJ, BOK 통화정책회의]** 2Q를 저점으로 코로나19 영향에서 벗어나는 경제 회복세가 경제지표를 통해 확인되고 있어, 상반기 꺼내던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완급 조절할 전망이다. BOJ, BOK 현 정책금리(-0.1%, 0.5%) 유지
- **[중국증시, 급등세 지속 여부]** 7월 들어, 상해종합지수 15.2%(9일 기준) 급등. 경기회복 기대감 & 정부의 증시 부양 의지를 바탕으로 상승하면서, 미국을 대신해 증시의 바로미터가 되고 있는 상황. 급락시 증시 투자심리 위축 불가피

Key Indicator & Event(7.13~7.17)

경제지표&이벤트명	해당 국가	일정 (현지시간)	전월치	예상치	방향성	내용 및 시사점
6월 수출 / 수입	중국	7.14	-3.3 / -16.7 (% YoY)	-1.8 / -8.9 (% YoY)	▲ / ▲	6월 제조업PMI 호조가 경기 회복 기대를 높인 가운데, 수출 증가율이 개선되는 점은 코로나19로 망가졌던 중국내 공급망 정상화에 대한 기대로 연결. 최근 중국증시 급등에도 양호한 투자 심리가 유지되는데 영향
6월 소매판매	미국	7.16	17.7 (% MoM)	5.6 (% MoM)	▼	전월보다 증가율 개선 폭이 축소되는 점은 최근 미국내 다시 재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 향후 경제지표 회복의 연속성에 대한 의구심을 높일 전망이다. 향후 미국내 주별 경제 정상화 속도에 따른 영향 불가피
2Q GDP	중국	7.16	-6.8 (% YoY)	2.4 (% YoY)	▲	코로나19로 크게 위축됐던 중국경제 우려가 2분기 GDP 성장률 개선을 통해 어느 정도 무마될 전망이다. 산업생산, 가계소비, 고정자산투자 등 정책지원을 통해 투자 및 소비 지표 회복이 나타나고 있어 하반기 개선흐름 이어질 전망이다

기준일: 20. 07. 09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기대감 확대

한상원 sangwon.han@daishin.com

2020.07.09

태양광 관련주 주가 강세 배경

- 한화솔루션, OCI, 현대에너지솔루션 등 국내 태양광 관련주 주가 강세 시현
- 금주 태양광 밸류체인 가격 폴리실리콘 +3.4%, 웨이퍼 +3.9%, 셀 +1.7%, 모듈 -0.6% WoW 등 상승: 코로나19에 따른 수요 위축으로 하락세가 이어졌으나 최근 반등세를 시현
- 문재인 대통령의 13일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 발표 예고, EU 집행위원회의 2050년 탄소 중립(탄소 순배출량 0) 달성을 위한 수소 확대 전략 채택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기대감 확대

폴리실리콘이 반등할 수밖에 없는 이유

- 금주 폴리실리콘 가격 전주 대비 3.4% 상승하며 2주 연속 상승(2W +7.4%), 6월 들어 하락세 진정 이후 반등 시현
- 기존 6.2달러/kg(6월 평균)의 가격 수준은 가장 원가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진 중국 Daqo의 원가(6달러/kg)에 근접할 정도로 낮은 수준으로 글로벌 Capa의 약 30% 정도만 이익 창출이 가능했던 상황
- 가격이 과도하게 하락하며 지속되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하반기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되며 가격 상승
→ 폴리실리콘의 공급과잉률은 130%에 이르나 연말 수요 집중 현상 발생 시 수급 밸런스 도달 기대
- 참고로 연간 약 120GW 전후의 태양광 수요와 주요 업체들의 Cost-Curve를 통해 산출되는 가격은 8달러/kg 수준

코로나19에 따른 단기 수요 위축에도 견조할 연간 태양광 수요

- 2020년 글로벌 태양광 수요 118GW(-0.8% YoY) 전망. 코로나19로 하반기 수요 집중 현상 기대(참고로 BNEF, IEA 등 전망 기관은 연간 수요를 90~110GW 내외로 예상)
- 중국: 4월 15억위안의 보조금 확정(vs. 2019년 30억위안, 23GW 규모), 이를 감안하면 연간 최소 수요 30GW로 추산 vs. 반면 코로나19에 따른 수요 지연으로 5월 누적 기준 6.2GW에 불과 → 하반기 수요 개선 기대
- 미국: 코로나19로 상반기 수요가 일시 부진하나 ITC 축소 전 연말 수요 집중 현상 기대(12GW, +12% YoY 전망) vs. EIA는 연간 16GW의 수요와 특히 4분기(GW) 집중을 예상, SEIA의 예상치도 17GW 수준
- 유럽: MIP(최소수입가격) 폐지 이후 태양광 수요 확대, 코로나19에도 전년 대비 소폭 둔화 예상(18GW, -3% YoY)
- 그 외 지역의 경우 인도 10GW, 일본 7GW 등으로 예상

▶ Compliance Notice

-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Research Center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위 애널리스트는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 ✓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